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陸軍工廠의勞組加入禁止

—無産運動에미치는影響—

一

最近 永持陸軍造兵廠長官으로부터 各關係團體에對하야 自發的으로 脫退할것을 慫慂한것은 本紙의이미 報道한바다。그리하야 이從業員들이 加擔한 官業勞働總同盟及 日本勞働組合會議에 加入한 各團體가 모혀 對策을 協議한 結果 組合會議의 大阪地方協議會委員長의 이름으로써 今回의 陸軍當局의 態度는 勞働組合에 對한 不當한 彈壓이라하야 反對의 뜻을 聲明하고、東京에서도 官業勞働總同盟의 支持團體인 社會大衆黨과 合法左翼政黨인 勞農無産協議會가 首腦部會議를 開催하고 陸軍當局의 措置에 不滿의 意를 表示하고 陸軍及 內務의 兩省을 訪問하고 抗議書를 提出하얏다는것도 旣報한바다。

二

永持長官의 脫退를 慫慂한 大阪、名古屋、小倉의 三工廠에 從事하는 勤務員은 大阪의 七千名이 大阪官業勞働組合에 屬하고、名古屋의 千四百名은 名古屋向上會에、六百名은 名古屋純向上會에 加入헤고、小倉의 四百名은 小倉革正會를 組織하얏는데 大阪官業勞組、名古屋向上會、小倉革正會는 官業勞組總同盟에、名古屋純向上會는 日本勞働總聯盟에 加盟하고 잇다。官業勞働總聯盟은 陸軍工廠의 大部分과 專賣局의 煙草關係從業員을 包含하야 二萬을 算하고、日本勞働總聯盟은 陸軍工廠從業員을 主力으로하고 잇서 가튼 陸軍關係從業員이라도 對立되어 왓스나 大阪서는 八月에 合同하야 大阪勞働組合으로 되고 名古屋서도 그合同氣運이 濃厚하야 젓섯는데 突然 陸軍工廠 從業員에게 이러한 禍殃이 내린것은 陸軍關係의 勞働團體는 勿論이오 全官業及民間關係의 勞働團體에 一大衝動을 주엇다 안흘수 업다。

三

大正十三年 勞働運動이 한참 高調되엿슬때 海軍當局은 各工廠從業員에 對하야 部外의 勞働組合에 加入함을 禁止하고 海軍聯盟을 組織케하야 海軍當局의 指導에 當한것은 記憶에 새로운 일이다。이러하야 陸軍에서도 이러한 境遇가 생기지 안흘가하는것은 이미 여러 사람의 豫測햇든바다。特히 陸軍의 肅淸을 云云하는 現下의 非常時에 잇서서 이러한 斷案이 내리리라한것은 推測키 困難치 안혓섯다。그러나 이미 活動이 가장 活潑하다고 認定밧던 左翼諸團體가 彈壓되고 穩健한 團體만이 남어잇든 此際에 勞組加入을 禁止한것은 晴天의 霹靂이라할것이다。

四

官業勞働者의 만흠은 日本內地에 잇서서 陸軍의 一百은 一見 大波紋을 이르키지 안흘수업다。그러나 各各二十萬의 從業員을 包擁한 鐵道、遞信兩省의 關係事業에는 現在의 勞働組合의 손은 퍼지지 못하고잇다。鐵道에서는 大正九年以來 現業委員會를、同十二年에는 大日本遞信事業委員會를 設置하야 部外의 勞組侵入을 防止하고잇고、遞信省에서는 일즉 遞友同志會가 五千餘의 組合員을 擁하엿스나 昭和七、八年頃 無産黨進出期에 沒落하고 따로 遞信從業員組合을 組織하고 大藏省 專賣局從業員도 積極的으로 勞하지안코 잇다。그러므로 이에 活潑한 團體은 잇슬수 업다。民間産業中 大企業의從業員은·勞組에 加入되지 안혓스므로 곳 影響이 잇슬것이 아니다。

五

그러므로 無産運動全體로 보드래도 陸軍工廠從業員은 官業勞働의 一部分이오 全勞働組合員으로 보면 極少部分에 不過하다。그러나 十年間 公然히 認定된 勞組를 禁止한은 重大問題다。反하야 [illegible] 勞働과 아울러 社會大衆黨과 勞農無産協議會의 合法化가 云云되는 此際 陸軍當局의 部外勞組의 加入禁止는 勞働運動全體에의 示唆를 與하는것이다。[illegible] 現在에 社大黨이 抗議하고 이에 反對하는바 아니나 陸軍關係乃至 官業勞働部門에서는 今後 一層 分裂될 傾向이 만흘것이다。

日獨兩國提携 反볼쉐비즘共同戰線?

但國際紛爭에捲入될까憂慮코 政府當局態度愼重

【東京電話同盟】駐露國中駐日獨大使데이리크젠氏가 再歸任한것을 機會로하야 獨逸政府가 日獨이提携하야 反볼쉐비즘共同戰線確立을 決定하엿다는 伯林電報는 뉴른베륵의나치스黨大會席上에서 히틀러總統이 볼쉐비즘打倒의大獅子吼와 關連하여 各方面의關心을 高吹하고잇다는데 日本政府는 伯林政府가 如何한方策을決定하고 日獨提携實踐에向하야 積極的活動을하여왓는지分明치안코 또 右에對하야 何等外交交涉을接하지아니햇다한다 그러나今春歸任한 日本武者小路駐獨大使가 히틀러總統과 會見한때 히틀러總統이 極히 含蓄잇는表現으로 볼쉐비즘에對하야 共同防衛의必要를强調하고 日本政府의考慮를 要請하엿다는것은 事實이고 獨逸政府가 東歐으로부터脅迫을感하는 볼쉐비즘에對하야 果敢한爭鬪를 繼續하고잇는事實은 北中滿洲의 赤化狀態에對하야 斷乎한 抗爭防衛의措置를取하고 잇는 日本의實情과 그軌를同一히함이다 共同利益에 對하야 共同防衛陣을 確立하는것은 歷史上各國間에 그例를보는바로 日本政府는 그 東亞政策確立에 對하야 必要하고 不可缺한對策으로 北中에서 赤化共同防衛陣確立을 要求하야 南京政府에 要求하엿는데 右는 어데까지던지 東亞를 東亞人의것으로하랴는 根本國策에서 出發하는것이며서 直接獨逸을 中心으로 發生한東歐問題에 介入하야 國際的紛爭에 휩쓸려들어가는것은 愼重한態度로서善處할方針이라한다 따라서 日獨蘇三國關係의現狀으로부터보면 反볼쉐비즘의推移하는것은 依然微妙한展開가 豫想될으로 다만 兩國關係緊迫化에따라 問題의 將來는 大端히 注目된다한다 (寫眞上은 스탈린氏、下右는寺內陸相、下左는히틀러總統)

陸海軍要求總額 十五億九千萬圓

査定上最大難關

【東京電話同盟】明年度豫算編成에對하야는 目下 大藏省主計局에서各省豫算概算書를 調査中이든바明年度豫算의 要求總額은 三十三億六千萬圓에 達하야 空前의巨額에達하엿슴으로 此를 어느程度로 査定할는지가 問題의中心으로되엿는데 其中에 더욱難關되여잇는것은 陸海軍의國防豫算에 關한것이다 卽來年度豫算에나타난 陸軍의要求總額은 八億二千萬圓(內譯標準豫算三億三千六百萬圓 在滿兵力充備改善에關한 經費二億二千萬圓 新國防諸計畫十二年繼續費明年度分約三億圓 一般新規要求約二千萬圓)海軍豫算總額七億七千萬圓(內譯標準豫算四億三千萬圓 新規要求三億四千萬圓)陸海合計 十五億九千萬圓에達하여잇는데 右 金額은 昭和五年度의 一般會計總豫算에 匹敵하는바 此를如何한 程度까지 削減하야 歲入歲出의 均衡을 取할는지는 今後折衝에待할터이나 陸軍當局은 今日의 國際情勢로보아 要求總額은 絶對로必要하다고한다 海軍도 明年부터 無條約狀態로됨으로 强硬態度로 臨하여잇는데 豫算閣議前에 廣田首相 馬場藏相 寺內陸相 永野海相의 四相會議에서도 相當히 議論이 紛糾되리라고觀測되는데 豫算編成決定期가迫到될에따라 政局은 一段緊張을呈하리라고觀測된다

八十七個所에 侍從을差遣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今秋北海道에서 擧行하는陸軍特別大演習을 御統裁하압시기爲하야 來二十四日 東京御發 北海道에 行幸하시기로되엿는대 御行幸中 特히 敬神 崇祖 産業開發 地方自治 敎育 社會各般 事業에 御奬勵의 思召하압셔 八十七個所에 侍從을 差遣하압시고 다시三個所에 侍從武官을 差遣하압시기로 二十一日 御聞하압시엿다

宋哲元氏闡明 冀察政權內外方針

【北平二十一日發同盟】宋哲元氏는 昨日마친 平津衛戍司令으로 擔任에 進出한以來 滿一個年이 되엿스므로 和平協調 精神을 强調한 「冀察同胞에 與하는書」를 配布하고 冀察政權 今後對內外方針을 闡明하엿다

余가 昨年十二月에 冀察政務委員會委員長에 就任할際 冀察兩省 平津兩市는 日本과特殊關係에잇서 兩國利益과 東洋平和를 爲하야相助相扶 眞正한 親善을實行하기에 最大誠意와 最善努力을 다하기를 宣言하엿섯는데 今後다시 一層努力을倍加하야 그實現을期한다고말하고 今後決코 誤國害民의喪權辱國을 하지안흘것으로 切實히 一般民衆의 協力援助를 務望한다고 結論하엿다

海軍省獨自의 重大聲明發表(廿一日中)

【東京電話同盟】對中問題의 重大化에 鑑하야 海軍에서는 二十一日午前九時부터 省內大臣室에서 永野海相 長谷川次官 島田軍令部次長 豊田軍務局長 近藤軍令部第一部長等이 參集하야 省部聯合協議會를 開催한結果

一、南京政府는 頻發하는 日本人殺害 侮日事件에 對하야 取締할 實力이업다 이대로 進展될時는 더욱 여러가지로 不祥事를 發生케할 憂慮가업다고 保키難하다

二、中國側에 誠意가 업고 排日抗日의 全滅에關한 日本案을 全面的으로 容認치안는以上 在中權益의 擁護 在留民의 生命財産保護의 重任을擔한 日本海軍으로서는 忍自重할 時期가아니다 사로 信하는바에 基하야 斷乎自衛手段을 講究하야 中國官民의 猛省을 促할수바게업다는言論에到達하야 마침내 自衛手段을 講究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一日中에 海軍省으로부터 重大發表가잇슬터이다

豐台協定休紙化? 日本側은極度로憤慨

【北平二十一日發同盟】豊台事件 現地協定에 依하면 撤退할 中國軍은 豊台駐屯部隊뿐만아니라 北寧線南側에 觸集한 部隊及從來南側一帶에 駐屯한 二十九軍全部를 意味하는것인데 中國側은 單只豊台中國軍뿐만을 撤退시길것으로서 協定이 實行되것이라고 表面을 糊塗하야 豊台를 相距한 겨우六百米에잇는 趙家村에 集結하야 그以上撤退할模樣이어서 豊台現地協定을 一片休紙化할랴는 意向이 明瞭한것이로 如斯한 中國側의 履次한 不信行爲에 對하야 日本側은極度로 憤慨하고잇다

新駐米大使 金融通商調整進出

【羅馬二十日發同盟】新任華盛頓駐箚 伊太利大使스빅치氏는 近近羅馬出發 赴任途上에 오를터인데 伊太利政府는 大使赴任을 機會로하야 米國政府와 金融通商關係의 全面的調整에 나갈方針인데 大使는 如左히 重要訓令을 受하엿다한다

一、米國政府에 對한 戰債總百一萬四千弗의 整理方主切下

一、米國市場에서 公債募集

豐台現地協定 完全한實行肉迫

【北平二十一日發同盟】豊台現地協定에關하야 中國側은 協定을 履行함의 嚴重한抗議를 日本側으로부터 맛고 二十一日朝來依然安協案을 提示하고 二十日現地에 到着 模樣하고 버리라는態度를 取하고잇는데 日本軍當局은 모든것이 日本軍出動에 依하야 解決된 該事件의 重大性에 鑑하야 現地協定에 一步라도 假借업시 安協을 斷乎히 峻拒하고 協定의 完全한實行을 要求하고잇다

國府反省치안흐면 國交上重大危機

外相、川越大使에再次重要訓電

日中國交에非常時!

【東京電話同盟】成都 北海兩事件이 勃發하자 緊迫한 日中國交를 調整하기爲하야 蔣介石氏의 歸京을 기다리지안코 去十五日 川越大使와 張群外交部長과의 間에 第一回會談을 行하엿는데 其推移如何는 日中兩國關係의 將來에 重大岐點이 되다하야 絶大注目을 갓고잇다 그리고 南京本交涉이 漸次其軌道에 오르려 하든때에 突然漢口에서 勃發한 吉岡巡査射殺事件에 依하야 南京交涉의 推移를 冷靜한 態度로 注視하든 日本朝野의 輿論은 俄然硬化하야 日中國交非常時到來의 觀念을 깁게하엿다 有田外相은 二十日에開催한 外務首腦部會議에서 今回의 漢口事件은 全然成都 北海兩事件과 同性質의것으로 南京政府가 再三 日本側으로부터 要求警告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全中의 排日取締彈壓에 對하야 誠意를 보히지안흔데 發生한 不祥事件인만큼 南京政府가 어데까지 反省치안흘時에는 南京本交涉도 마침내 重大危機에 直面하엿다고 말하지안흘수업다 그리고 日本帝國政府는 南京政府가 今回事件에 對하야 自己의非를 猛省하고 日中提携 東亞親善工作에 邁進할것은 日本政府의 歷史的使命이라는것을 强調하고 日中本交涉 第一會談에잇서 日本側에서 嚴然히 提出한日中兩國國交調整에 關한 根本的要求를 다시南京政府에 거듭 徹底케하기로하고 川越大使에 再次 重要訓令을發하기로 決定하엿다 卽

一、南京政府는 排日取締强壓에 對하야 如何한 具體的方策을 實施하려하는가

一、南京政府는 다시 積極的으로 日中兩國關係의 改善을爲하야 如何한 具體的誠意를披瀝하려하는가

一、日中兩國의 從來의 諸懸案 解決을爲하야 如何한 具體的 實踐의 態度를 明示할려이가

卽 南京政府는 中國民衆의 排日暴行을 傍觀하면서 排日抗戰 態度를 默過하는限 日中兩國의 關係改善은 百年河淸의 類이데 日本政府는 東亞政策遂行에잇서 如斯히 區區한 中國民衆의 排日行爲와 繼續으로 一日이라도 中斷을 許할것이아니다 排日暴動은 其自身 中國自身의 苦惱를 기피한다는것을認識할時 南京政府는 爲先 全中排日禁止에 對하야 모든努力을 다하는同時에 日中兩國間의改善을 爲하야 積極的으로 努力할것이라는것이 其根本策이다

부라질國內 情勢不安 共産革命勃發爾後

【리오데자네이로十九日發同盟】부라질政府는 一九三五年一月二十五日 共産革命의 勃發로 戒嚴令을 宣布하고 其後戰時狀態令으로 變更하엿는데 아직社會情勢는 徹底的 安定을 缺하고잇슴으로 政府는 十八日부터向後九十日間 戰時狀態令을 布告하엿다 그리고 十一月三日로써 閉會할 通常議會도 年末까지延長될模樣이다

夕刊後市況 廿一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一七一五〇(二〇高)
鐘新 一七一六〇(不變)
日產 八一九〇(二〇低)
東新 一三七九〇(四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七三二〇〇 先限七二五〇〇
◆湖井 人絹 後引◆
當限 六二八〇 先限 五九八〇

南總督告辭

地方中堅靑年講習會에서

地方中堅靑年講習會開講式席上에서의 南總督의告辭는如左하다

◇告辭

地方中堅靑年講習會는 回를거듭하기이미九回에及하야 其間講習을受한者三百八十二名 出身地는 널리各道에亘하야 受講後農山漁村에서鄕土振興、經濟更生、民衆敎化에盡瘁한바不少한것은 予의가장欣快하는바이다 今回도새로運子를마저 第十回講習會를開催하고 地方中堅으로 奉仕活躍할 [illegible]고 各各鄕土의要求에應하야 社會의期待에合致하려는바잇다 方今我國은더욱 [illegible]되고 內外多事하야 [illegible] 民心의 [illegible]을 不許하는情勢에잇서서 民心을 [illegible]케하고 國本을 [illegible]하자하면 먼저 國家의中堅이될 靑年自身이 自戒自重하야서 [illegible] 一般에 示範할것이다 朝鮮社會에 及하여야할것이다 朝鮮에서는 昭和七年時局에 鑑하야 特히 農村振興 自力更生의 運動을 이르킨爾來 官民一途 其趣旨의 達成에 努力하여온結果 本運動은 [illegible] 效果크게擧하야 [illegible] 昨年에 다시 計劃을 擴充하고 其成績의 [illegible]케되엿다 그리고 其成否는 오직地方의 中堅人物의 [illegible]에잇는바 總督府에서 各道에 中堅人物養成을 獎勵하고 또 [illegible]施設을 [illegible]하야 이에多大한期待를두고 效果를 求하는所以이다

最近 朝鮮一帶를 [illegible]한 水害는 多數의人命을 喪하고 家財를流失하고 道路를 破壞하고 新地를 [illegible]케하야 災害가 激甚한것은 近年드물게 보는바이다 그러고 [illegible] 諸君의 [illegible] 責任이 多大하다 諸君은 [illegible] 本講習會에 出席하게된 所以를 깨닷고 [illegible] 그어든바를 各各 [illegible] 케하는同時에 地方開發振興에 貢獻하고 社會의 期待에 副하기를 期할것이다

昭和十一年九月二十一日 朝鮮總督 南次郎

危險이업스면 日本側만으로調査

【海口(海南島)二十一日久我同盟特派員發】二十日午後 日本調査員이 民國軍艦 福安號를 訪問한때 德市長은 目下調査打合中인 北海狀況이 判明되면 二十一日 民國側軍艦이 上陸하야 調査를하고 危險이업다면 貴國單獨으로 調査를하라는旨를 言明하엿다한다

中央地方稅制整理案

【東京電話同盟】中央地方을通하는稅制整理案大綱은 大藏 內務兩省사이에 最後的決定을 보앗는데 明二十二日定例閣議席上에서 馬場藏相及 潮內相으로부터 中央 地方兩稅制整理案 內容을說明하야 閣議承認을 求한後 同日午後 廣田首相 馬場藏相은 宮中의御形便을上同參內 天皇陛下께拜謁을仰付케되여稅制整理大綱을 奏上하고 大藏省及 內務省으로부터 各各中央地方兩稅制整理案의 大綱을 發表하기로決定하엿다

佛首相、英外相과 全歐問題討議

英佛意見一致에滿足

【巴里二十日發同盟】블룸首相은 이든英國外相과 會談한後 新聞記者團을 引見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이든英國外相과 歐羅巴全般의 諸懸案에 對하야 隔意업는意見交換을 遂하엿는데 會談한結果 매우 滿足하고 英國、佛國 兩國政府의 見解는 全然 一致하엿다 獨逸政府가 로카르노會議에 參加할 與否는 아직 明確한通告에 接하지 아니햇스나 參加를 拒否할 理由는 업다고생각한다 獨逸及 蘇聯兩國關係에 對하여는 로카르노會議問題에 對하야는 넘어기피 말하지는아니하엿스나 如何든 今回總會에 本問題가 具體的으로 決定되지는 안홀것이다 余는二十五、六日頃 쥬네브를訪問 數日間滯在하야 可能한範圍에 여러外國代表와 會見하야 意見交換을 遂할생각이다

한便이든外相도 辭去할에當하야 會談은 가장圓滿히 進捗되엿다는旨를 言明하엿다

【巴里二十日發同盟】英國外相이든氏는 聯盟總會出席途中 二十日午後六時 首相官邸에 블룸首相을 訪問하고 前後一時間半에 亘하야 重要意見交換을 遂하엿는데 席上 兩巨頭는 聯盟理事會總會對策及 로카르노會議의外交上重要懸案에 對하야 意見交換을 遂行하엿다 就中 블룸首相은 佛國政府는 聯盟總會에 一般國際軍縮會議復活을提唱할意向이라는旨를 述하야 이든外相의 支持를要請하엿다고傳한다 이든外相은 右要請에對하야 英國政府로서도 協力할旨를 確言한模樣이다 또 로카르노會議에서 獨逸蘇聯兩國招請案에對하야 協議하엿는데 結局英國 佛國 白耳義 獨逸 伊太利五個國政府와 協議를遂하야 會議가 第一階段에到着한후에 다시各國政府를 招請하야 로카르노體制에 代位하는全歐羅巴平和機構案을 樹立하기로 意見이一致되엇다解釋된다

當選謝禮
本人이今般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에當選되엿사옵기有權者諸位와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金泰濂

當選謝禮
本人이今般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에當選되엿사옵기有權者諸位와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木下榮

當選謝禮
本人이今般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에當選되엿사옵기有權者諸位와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鈴木文助

當選謝禮
本人이今般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에當選되엿사옵기有權者諸位와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車相鎬

當選謝禮
本人이今般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에當選되엿사옵기有權者諸位와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康容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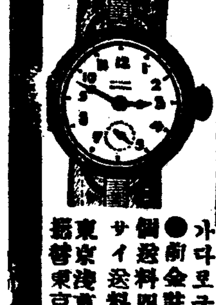
當選謝禮
本人이今般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에當選되엿사옵기有權者諸位와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長谷川和三郎

當選謝禮
本人이今般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에當選되엿사옵기有權者諸位와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姜永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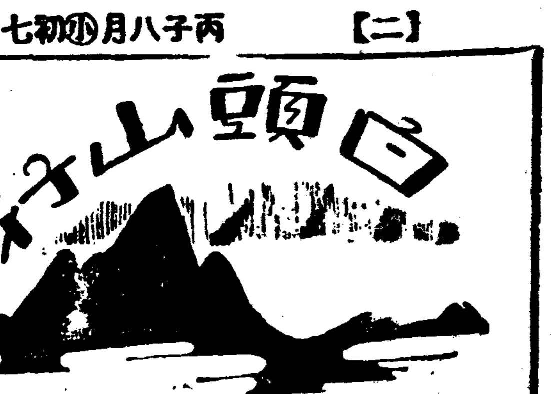
當選謝禮
本人이今般京城府會議員增員選擧에當選되엿사옵기有權者諸位와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韓相億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イカリソース (이가리소-스)
日本一의産額 日本一의品質 日本一의信用
日本에第一


最新流行形
秋季大特賣
品質十個年
絶對安全!!
品物お氣に召さぬ時は交換自由!
精工舍製クロム16型懷中
1 七石(市價九圓品)特價三、五〇
2 七石(市價十一圓品)〃四、五〇
3 七石(市價十三圓品)〃五、九〇
4 七石(市價十六圓品)〃七、八〇
5 七石(市價十九圓品)〃九、四〇
瑞西製16型クロム懷中
イ 七石(市價六圓品)特價二、六〇
ロ 七石(市價十二圓品)〃五、七〇
ハ 七石(市價十七圓品)〃四、六〇
ニ 七石(市價廿三圓品)〃六、七〇
ホ 十五石(市價廿六圓品)〃七、九〇
ヘ 十五石(市價廿七圓品)〃八、四〇
瑞西製11型クロム腕卷
8 七石(市價九圓品)特價二、七〇
9 七石(市價十四圓品)〃五、七〇
◎ウオルサム16型懷中
A 七石(市價二十圓品)〃七、五〇
B 七石(市價廿七圓品)〃九、三〇
가다로구차구는전우이전로내시오
●前金註文ハ送料不要●代引ハ每個送料四十錢分郵便切手ヲ送附下サイ送料前納者以外代引絶對謝絶
東京淺草松葉町二二 振替東京六六八五七 天賞堂

絶對不變色
松高緞
耐久力强大
물안빠지고 모양조코 폭넓고 질기고 갑싼
송고단
색(백색、회색、밤색 연회색、진회색)
開城府高麗町
松高織 松高緞 松高洋襪
株式會社 松高實業場
電話三一大番
全鮮各府本店、百貨店에잇습니다。



處女의明眸가튼 鏡水無風三池淵

五日間의 仙境꿈은 깨여지고

그래도그리는娑婆로

李相昊記

되려다보는 하늘우세계가 하도우락부락하고 내려다보는 따우세계가 워낙 푸지고보니 말이다하고 형용도곤허지고 생각도엄서지고 느낌도살아져서 오직남은것이라고는 머리카락오리오리 빼속마디마듸 숨여드는 무서움과 놀라움과 어린동감과 벙벙한늣김인데다가 그치위와 그바람ㅣ치위는 눈우이니 말할것도 업지마는 바람은 이곳이 만주ㅅ바람 조선바람 동해ㅅ바람 서해ㅅ바람의 도회청이되고 보니 방향도업고 갈피도업는바람이 몹주체를 못하두록하야 더위잡고잇슬 바위가업다면 그대로 날속으로 날라갈판이다。 소리소리처도 말한마디들릴배업고갈시이는바람에 숨도 마만이못쉬고 눈물과 코ㅅ물을 더퍼신 얼골과 얼골들은 삣떠러케 진려서 몸둥이는 아주동태가되고 말엇다。

남은기운을 다끄러내여 만세세번을부를 때는 팔월십사일정오。

이러케 급한판에도 밝긴혼돌리기가아까워 몃번이나 망서리다가 하여하시 천지에 리별을 엿숩고도라섯다

○……○

허둥지둥 내림길을 빨리하야 그날밤을 무두동에서 두번재잣고 이튼날은 오든길로 신무성(神武城)을거치여 새로 갑산(甲山)으로드러서 삼지연(三池淵)까지 백리길이다。

그냥그밀림을 되푸리하야 삼지연에닷기는 팔월십사일오후다섯시。

천지의 남성적임에비하야 어데까지라도 녀성적인 백두산중의 녀왕이라고 부르고시픈삼지연。

처녀의 눈동자처럼 맑고 깨끗한호수가 태고이래로 독기맛을 못본 기름이뚝뚝듯는 의갈숩에 둘려싸여 거울가튼물바다이 경수무풍(鏡水無風)그것이다。

치위와바람으로 천지바닥우에 내려가 떠우지못한배를 여긔서나마하고 준비해온 베로 만든배를 황혼의물비치 비단결가티 어린 호수우에 띄웟다。

○……○

부슬부슬 내리는 찬비를마저가며 백두산중에 마즈막로영터를엇고 구뷔구뷔 피여오르는 못가운데 안개를 바라보며 백사차(白山茶)한보식이로 속을 풀때는 속절업는 신선노릇이다

내일이면 사바(娑婆)로 내려갈몸 마즈막 로영을 다스한꿈속에서보내고 이러나니 팔월십오일아츰 포태리(胞胎里)를향하야떠낫다。

여긔서 포태리까지는 느러진 오십리가 진펄아니면 도목(倒木)도 목아니면 진펄 형용도 할수업는 어려운길이다。

허항령(虛項嶺)마루턱에 외로히서잇는 천왕당을 외편으로시처서 십리도못와서부터는 제절로잡버진 나무가아니라 독기로 찍어너머트린나무가 질펀하게누엇다。 벌서인간냄새가 코를찌른다。 어느행 원령으로인이 멘머리상투바람으로 담배ㅅ대를물고 마주오다오지안나。 농사동욕며나 당세만에 처음만난 인간이다。 반갑기 가지업서 말이라도 거련볼려는판에 저긔서는 강아지한마리가 뛰여 나오지안나。 무미처 우수수한 머리이업풀은 외롯가려노흔 어린애들이 바지춤을 추어든채로 뛰여드나온다。 저긔는 농나무울집이 두어채 보인다。 로동방에는 푸린대려고은 놓다고 보아야 한집도업는 태고그대로와 나무섭과 거에게지진 원시림인데다가 수삼년에 태도로 바라뜰다。

이제는 인간에 도라 왓구나。

당세만에 본도사방 서의(鮮魚)의긔운 사정이서 깨여저 버렷다。

여긔는 이분권에 나무를 베는 인부들에게 방을 파는 주막이라고한다。

○……○

엄마더가자 혜산진(惠山鎭)으로부터 마중오는 경관대 엽다섯명을만나 동행을 하야다 제목을 실려 압록강으로 나리는 『레일』이 나오고 제목채벌사무소까지 드러온 경편선이 보이고 우리는 완전히사바로 도라왓다。

별안간에 길이 오후벡처 낭떠러지며 아페는 남포태산(南胞胎山)이 가로막고 멀리내려다보이는 바닥에는 백두산서쪽기슭에는 첫동리포태리동리가 보인다。

포태리에서 엽세만에 처음으로 짐충및 장울차게된우리는팔월십육일은혜산진을거처 서울로 도라오는길을 바삐하얏다

(사진은 삼지연두에서섬일동)

(終)

廿一年來大暴雨

雄基市內一千戶浸水

每坪二石二斗로超記錄的雨量

【雄基支局特電】 이십일일 오후일곱시사십분부터 함풍웅기(雄基)지방일대에는 비가 쏘다저서 오후아홉시반까지 한령에 대하야 두섬두말가량이 나린는데 웅기측후소(測候所) 설치이래이십일년동안에 처음보낸 큰비다 신시장(新市場)부근에는 석자나 물이 드럿스며 전시가가 거의침수된 상태이다 웅기경찰서 에서는 『싸이렌』을 울리고 경계중이다 아직 (이십일일 밤열시) 침수된 가옥은 불분명하나 약일천호가량은 침수된모양이다 다행히 이번비의나린범위는 좁다한다

交通安全協會!

官民有力者網羅創設

廿六日京畿道廳에서發起人會

경성부윤 부내각경찰서장 각신문사사장 경기도 자동차협회관계자 경기도 지사 경찰부장기타 전기회사 철도회사 운수회사관계자등 삼십수명의 발긔로 오는이십륙일 오후한시에경긔도회의실에서 경긔도교통안전협회(京畿道交通安全協會)를 발긔하고저 발긔인회를 열리라한다 그취지를 보면근년에 경성부가 급격히 발전되여 감에따라 교통사고가 해마다 느러가는형편으로 소화륙년에는 구백오십삼건 소화칠년에는 구백칠십삼건 소화팔년에는 팔백오십삼건 소화구년에는 일천구십구건 소화십년에는일천칠십칠건이나되는데교통정리의방책을 철저히강구하지안흐면 경성의거리를 거러다니는사람은 장차더욱위험을늣끼게될 현상이라한다

중요한네거리에는 『꼬·스톱』긔게를 설치하야 교통을정리하고잇스나 그것한개를 설치하는데도 칠백원가량이나 비용이들게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비용은 운전수시험에쓰는 자동차를 경긔도에서 빌려주고 그사용료를 바더서 충당해왓스나 아프로 상당한 회비를 부담하고 시설비용을찬조할회원을모집하야 교통사고방지에 힘쓰고저하는것이다

蕭瑟한金風의脅威 百萬災民의焦燥

將次닥처올嚴寒暴虐압두고

最後奮發의救品遝至

지리하고도 무시무시하든 비바람이 내언제부럿든가 하는듯이 사라저버리고 요사이일긔는 씨츤듯이맑어 고요하다 아츰저녁으로 불어오는 쌀쌀한바람은 가을을알리니 서리빨이돗고 눈보래칠날도 이제는 멧날아니남엇다 자연의힘에 완전히정복된 리재지백만동포의아페는 주림외에 또한가지추위가 한거름한거름절박하고잇스니 그들의 참경이야 어찌이루옴겨 붓으로긔록할수잇스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동포에는 날세가 차갈수록 더늘고 집중되고잇스니 이십일 본사에그락하여온 금품만하여도 다음과가트니 그적성에는 오직 감루(感淚)가방타할뿐이다 그러나근본대책이업고서는 무으무럭한 백만의 리재민들은 가위풍전의등화가튼 신세이라한다

▲衣類三六點 水原郡松山面沙江里監理敎會 同郡同面芝老里監理敎會

▲現金二十五圓 京城公立商業實修學校生徒一同

▲現金八圓七十錢 衣類一○○點 府內阿峴町山七ノ三和光學校生徒一同

▲現金十一圓三十錢 府內本町二丁目福屋裁縫所職員一同

▲現金三圓 府內山手町一七八申呂福

▲現金三圓 府內元町四丁目六九韓得吉

▲現金八圓七十五錢 府內세부란스病院看護婦一同

▲現金二十圓十四錢 府內中央基督敎靑年會工藝科中等科生徒一同

▲現金十二圓七十二錢

▲敎科書學用品三一八點 同上普通科生徒一同

▲現金三十圓三十錢 府內鍾路二丁目民衆醫院職員一同

▲現金一百三十五圓五十二錢 府內延禧專門學校職員生徒一同

▲現金三十圓 府內寬勳町朴勝彬氏

▲衣類三三點 府內桂洞町 金榮淑氏

▲現金十一圓 府內蓬萊町四丁目東明고무工業所女工一同

▲衣類三六一點 府內崇仁公普校兒童一同

◇第四次救濟品發送 ……廿一日本社後庭에서……

哀傷의가을인저!

붓적느는婦女의出奔

鍾路署에만하로搜索願五件

가을비치 바야흐로기퍼감에따라 애상(哀傷)의 출분녀(出奔女)가 도처에 만타이십일일시내종로서에 들어온 수사원도다섯건이나되다

▲사리원읍북리(沙里院邑北里)서성길(徐成吉)의 안해 장화실(張華實)(二五)은 세살먹이 딸을 남기고 집을나갓고

▲시내 아현정(阿峴町)오십칠번지김흥긔(金興基)의 누의동생부전(富全)(一七)이란 소녀는정미소녀공으로 단이던바 어떤사나히에 유혹이되엿는지 집을나가고 돌아오지안흐며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 오십사번지의이호 리병주(李丙周)의안해 방씨(方氏)(一七)도집을나가고 돌아오지안코

▲시내한강통(漢江通)십오번지서영준(徐永俊)의 음식점에고용되여잇던박순이(朴順伊)(一七)는전차금 이백원을 지닌채 그대로 도망하여버렷고

▲서천읍한산면 지현리(舒川郡韓山面芝峴里) 최양식(崔養植)집의 예긔로잇던 김사월(金[illegible]月)(二〇)이도 집을나가 버리고아직것 돌아오지안는다고한다

飛石에重傷入院

이십일일 오후네시십팔분에 경기도김포군 양동면가양리(金浦郡陽東面加陽里)에 잇는 총독부내무국양천채석장(陽川採石場)에서 폭파공사를하든중 바위돌이 날려가서 일천미돌가량의 거리에 잇든백사공 리순만(李順萬)(三二)에게마저서 나레중상을입어 서울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에 입원치료중이데 일개월이상의 치료를바들 중상이라한다

殺人未遂犯人에게 四年間"執猶"言渡

新婚妹夫에게갈질한柳義卓에게寬大한處分

美貌"剝奪劇"의大團圓

자긔매부가 신혼초에 기성을데리고 집에까지와서 란잡한행위를하야 자긔누이에게 큰모욕을준것을 분개하야 마침내 미리준비하엿든 날카로운칼로 매부의 얼골과 머리를찔러 상처를내이고 살인미수죄명미레 법정에서게된 부내종로정오정삼십번지의십팔호 류의탁(柳義卓)(二七)에 관한언도공판은 이십일일오후세시에 서소문(西小門)재판소(靑柳)검사관에미레열렷든데 재판장은 검사의 징역삼년 구형에대하야 이년징역에 사년집행유예의 관대한판결을 언도하엿다 그리고당일 방청석에는피고의가족을 비롯하야 약륙십여명의방청인이 모혀섯다

元世昌氏十圓

【城津】 성진읍욱정 원세창(元世昌)씨는 다년가입본대판에서 조선생으로가인상을 경영하다가 지난여름 정양차로 고향인성진에 도라왓는데 그비절참절한 삼남수해의 소식을듯고 동정금으로 일금십원을 자진하야 본보성진지국에 기탁한바잇서 동지국에서는즉시본사로 송금하엿다고한다

婦女子相對詐欺

裁縫틀사준다고保證金떼먹기

寡婦와結婚코는賣渡

소화구년구월에 전과사범의형과를마치고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를나오작자가 멀정하게도 인조견(人造絹)행상으로 가장한후 인천(仁川)과 경성(京城)을무대로 사긔행각에 무지한부녀를들리기 무려삼십회 십구일에드디어 악운이진하야 서대문경찰서에체포되엿다 본적을 인천화평리(仁川花平里)에둔 전과사범조병구(趙炳九)(三四)는 형무소를나온후 곳인조견행상으로 가장을하고 인천(仁川)과 시내각처로 도라단기며 부녀자들에게 재봉긔계를사준다고 픽게하고 한사람에게서 삼십원 혹은 오십원식 사과하여온것이 그동안 삼십여건으로 피해액이천여원에달하는데 최근의 범죄 사실로는 부내 신공덕정(新孔德町)일백삼십번지에 사는 김흥덕(金後德)의 처리씨(李氏)(三〇)에게 가서 재봉긔게를 사준다고 한후 현금이십오원을 바더가지고 전그리씨와가티 전차를 타고가다가 도중에서 도망하엿스며 긔타 현저정(峴底町)팔십사번지식료품상 박병환(朴炳煥)의집에가서도 동일한 수단으로 삼십여원을 사긔하엿는데 이자는이밧에도 구차한 과부를 전문으로일단결혼을한후 이삼개월을 가티살다가는 팔어먹은사실도 상당히 만허 동서에서는 준엄한취조를계속하고잇는중이다

窓口노리는鼠賊

郵便局、金組等에서

남의주머니를털다가被捉

이십일일 오후한시경에 시내광화문(光化門)우편국안에서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이백구번지 덕영피혁(德永皮革)상회점원의양복주머니로부터 현금십원을쓰리하려는자를 그우편국소사 장선경(張善慶)군이 발견하고 민첩하게현장을 붓들어 소관종로서로넘기엇는데 그범인은 시내련지정(蓮池町)사는 전과오범의김창녀(金昌汝)(三〇)로서 이달초순경에 시내 서대문(西大門)우편국에서 현금백원을쓰리한것을 비롯하야 각은행 우편국 금융조합등을 전문으로 출입하면서 그곳에온 손님들의 주머니에손을너허 도적하던것으로 그피해가 천여원에달한다고한다

京城裡里間輸送飛行

일전에 체신국으로부터 경성리리(裡里)사이의 정긔려객(旅客)및 화물(貨物)수송영업(營送營業)의 허가를 어든 신용우(愼鏞頊)비행사는 드듸여 오는시월륙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기로 되엿다

運動競技

體育데이 男女庭球

京城府體育데이 軟式庭球大會

는 十月一日과 四日의 兩日間 京城運動場코―트에서 열릴터인데 參加希望者는 來廿五日까지 京城府內 朝鮮軟式庭球聯盟으로 申請하기를 바란다하며 一般規定은다음과가다

▲十月一日‖◇男子一般部(個人트나멘트) 午前九時開始 京城球場A코―트使用 ◇男子中等校部 (個人트나멘트) 各校三組以內 午前九時開始 京城球場B코―트使用

그리고 以上兩競技가當日終了치 못할때에는 十月三日(土曜日) 午後三時부터 續行함

▲十月四日‖女子中等校部(對校리그戰) 各校三組로서 一組이될正選手以外에 二組以內의 補缺을 認定함 午前九時開始 京城球場A B兩코―트使用 試合方法은 三組對抗優退戰에 依하야 『리―그』戰을 行함 同率일때에는 朝鮮軟式庭球聯盟競技規則에 據하야決定함

京畿中等陸上對抗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三回京畿道內 男子中等校對抗競技大會는 來廿七日午前十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 行할터이라하는바 報한바어니와 參加希望校는 廿一日까지 京畿道廳地方課內 同協會로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競技種目‖百米、二百米、四百米、八百米、千五百米、五千米、高障碍、低障碍、八百米繼走、千六百米繼走、投圓盤、投砲丸(十二封度)投槍、走幅跳、走高跳、三段跳、棒高跳

▲等級及得點‖各種目에 五等까지(但繼走는三等까지)得點은一等五點、二等四點、三等三點四等二點 五等一點(但繼走는一等五點二等三點三等一點)

▲出場資格‖道內男子中等校所屬選手로서 今年度日本陸上競技聯盟登錄者

▲出場規定‖選手는一校로부터一種目四名으로함(但繼走는六名)

▲申込期日‖來二十一日까지 京畿道地方課 京畿道陸上競技協會로申込할것

神宮卓球代表決定

第十二回朝鮮神宮大會卓球部京畿道及 京城府豫選會는 二十日午前九時부터 帝大豫科講堂에서열린바 다음과가티 代表를決定하엿다

▲京畿道代表‖文錫瓚 崔根善 具哲洙(開城)金正熙(楊州)朴元瑞(抱川)鄭鎭烈(龍仁)尹斗植 沈啓澤 近藤 寺田 山本 橋本 楠木(仁川)以上十三名

▲京城府代表‖金容喆 水島 邊龍煥 曹明煥 早瀨 李在雨 朴在穆(以上總督府)周鐸洪 高棕鎬(普專)鄭安弼 赤星 樺島(城大) 信太 早瀨(齒專)朴鍾泰(高商)深堀(朝銀)金相赫(專賣)早川(裁判所)鄭寅海(金融)石完鍾(遞信)洪允基(雅樂)金木(京電) 金龍雲(白雲)崔鶯 崔炳夏(無讀)以上二十五名

陸協마라손公認코스

全朝鮮陸上競技協會의 公認『마라손·코―스』는 다음과가다

京城運動場陸上競技場百米決勝點을 出發하야 東大門↓鍾路五丁目↓大學↓東小門(一粁二分)↓高商↓昌慶苑(三粁七分)↓敦化門↓總督府(五粁九分)↓京城府廳↓南大門(七粁八分)↓京城驛 (八粁四分)↓練兵 町(九粁九五)↓三角地↓漢江橋(十三粁八分)↓鷺梁津驛(十五粁一分)↓永登浦 (十八粁八分)↓番 道路↓道林橋↓廿一粁一分地點에서 歸路에드러 出發點까지 同코―스로 도라오는 全距離四二·一九五米이다

學園蹴球의最高峰 延專對崇專定期蹴球戰

日時 九月廿五、六兩日間(午後四時半開始)
場所 京城運動場
入場料 一般二十錢 學生二十錢
主催 延禧專門學校 崇實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

大日本國民中學會

青少年諸君 優越의事情으로中等學校에通學할수업는諸君은本會에入會하야日本一의講義錄으로獨學하야將來活躍의基礎를삼으라

中學(女高)卒業의學力

三大講義錄 正則中學講義錄 速成中學講義錄 高等女學講義錄

講義錄見本入會案內 獨學立身成績案內及特典券添二葉書로「講義錄見本入會案內送付하라」고서本會로申込하면곳無代進呈함

大特典贈呈 秋季新學期講讀紀念으로서此際入會者에會費二個月免除特許生採用獎學金贈呈其他十大特典提供

本會의十二大特長 ◎創立이오래다◎信用이만타 ◎內容이새롭다◎敎授가相當하다 ◎會費가싸다◎卒業이빠르다 ◎基礎가굿다◎學則이바르다 ◎講師가훌륭하다◎指導가조타 ◎印刷가아름답다 成功이確實하다

成功者續出 本會의講義錄으로獨學하야社會에나가서成功한名士는各方面에無數 詳細는『入會案內』를보라

創立三十四周年 大同秋季新學期 東京市神田區駿河臺 大日本國民中學會 振替口座東京四二〇〇番

宇垣一成妻貞子以宿患 九月二十日 午後八時四十五分別世 茲以告訃
追而 永訣式來九月二十五日自午後二時至三時 於青山齋場以佛式擧行
昭和十一年九月二十二日
東京市四谷區內藤町一番地
男 宇垣一雄
親戚總代 小原玄之 矢野義弓 渡邊勝三郎
友人總代 矢野恒太 岸本鹿太郎

鹿矢票
冬物品揃 毛 メリヤス オーバ セーター 手袋・沓下
現金問屋 (相場表進呈)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四丁目むオ橋筋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電話船場四〇一九番 振替大阪六九六三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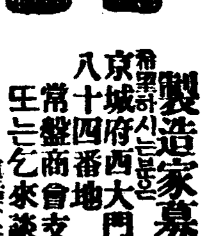
諸金物 木手器具、建築金物 理髮器具、家庭金物 卸問屋
(同業者에限하야型錄送呈함)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一丁目
正宣刄物本舖 大野合名會社

ステツキ パイプ 卸
現代的趣味에最合하고賣行이極히良好한 流行 煙用
(申込次第型錄進呈)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丁目心齋橋筋
合名會社 井村友三郎商店
電話船場四一〇二·振替大阪三二八九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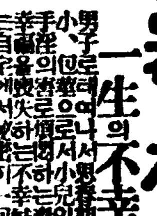
專門製造直賣·信用廉價日本一
鋸製造卸 大工道具 卸値段表進呈
大工道具·理髮器具·金物一般
大阪市東區神崎町四八 武村製作所
電話東一七八五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

百圓資本으로文房具店을開業합니다
內外文房具問屋 イチヤ商店
四錢切手添付하야申込하는諸位에게案內書及型錄進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一丁目
電話船場四七七七番 振替大阪三一五七三番

大阪着名問屋案內
冬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軍手


이은자리업는軍手의 製造家募集
希望하시는분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十四番地 常盤商會支店에照會 또는乞求談
ツキメナシ軍手製造元 東京市神田區五軒町九の一 常盤商會本店 電話下谷三三七一番

生○器의적은분은 一生의不幸

特許 最新強大法
東京 眞空療法研究所

生活難으로逃走 警察에搜食願

【仁川】생활난으로 안해와자식을버리고다라난 남편을 차저주오-인천부금곡리(金谷里)십륙번지 리삼룡(李三龍)(三七)은 어린자매삼형을 업고 걸리면서 남편을 차저달나는수색원을 눈물을머음고 인천서에 제출하얏다 네온불수거대 그의남편 최병옥(崔炳玉)(三七)은 약사일전 먹을것이업서 조반도변변히 먹지못하고 출항으로 돈벌러하려나간채 도라오지안는것이라한다

戰前의人氣는衝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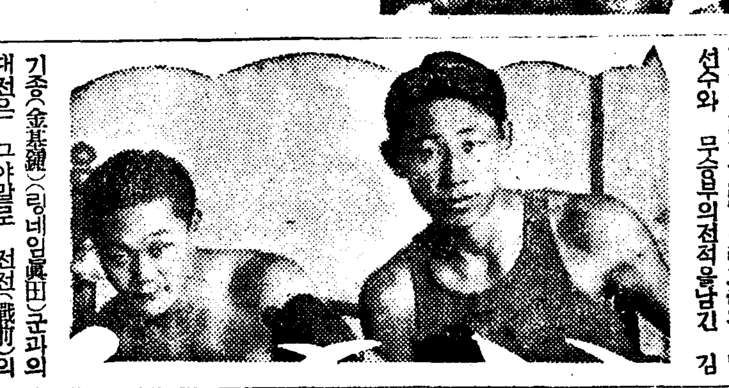
雪辱、連勝此一戰
兩雄의鐵腕은鳴動

메인이벤트못지안은沈、金兩豪對戰
徐廷權復讎戰은今夜！

투호회전(鬪拳豪華戰)은 이윽고 금 이십이일밤일곱시부터 경성운동장 정구장(京城運動場庭球場) 특설링에서열리게되엿다 조선이나은보배! 세계적빤탐급 제일위란 놀나운 전적을 남기고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서정권(徐廷權)군은 그동안의 울분을 이일전으로서 깨끗

청량한날 씨에 한 꺼맘꺼설 은이의가 승은 뒤 고 피는 끝는 스 포-츠의 가올올마 지하야만 전하펜이 다가티기 다리든권

이 씨처버리려고 가장흥분한자신을가지고 오직이날의 결사적



싸홈을 기다리고잇슬뿐 이와대전할 송기완(宋基完)(링네임左右田)군은 향토에서의 제일전에 서군을 재차굴복시키고 전일본빤탐급의 왕좌를 차지하야 세계적무대에 진출할열쇠를쥐일 귀중한일전이라 량웅의긴장과흥분은 절정에달하야잇다 그리고 상승의패적을 자랑하는 강호 심상옥(沈相玉)군과 일본내지에서 「피스톤」굴구(堀口)라고하는 명선수와 무승부의전적을남긴 김기종(金基鍾)(링네임眞田)군과의 대전은 그야말로 전전(戰前)의 예상을 허치안는바 철완과 철완의 불나는 쟁투는 팬들의만열(滿悅)을 자아내고도 남음이 잇슬것으로 폭풍적인기는 오늘밤 경성운동장으로 총집중되고 잇다 당야의 대진은 다음과가티결정되엿다

【六回戰】
〈韓秀昌 〈金光熙 〈金永植
〈李光鍾 〈朴谷植 〈林 繁

따블·메인에벤트
〈沈相玉(朝鮮페더級選手權者)
〈金基鍾(링네임眞田)(名古屋)
〈徐廷權(世界빤탐級第六位)
〈宋基完(링네임左右田)新加坡빤탐級選手權者

徐廷權君談

미국으로부터 고국에 도라온이래 이번만은 충분한연습도 싸엇고 조흔「컨디슌」으로 대전케되니 상당한자신을 갓게합니다 나의 상대자송군은 철두철미「러싱」하야 공격의여유를 주지안는것이 특기인모양인데 그러대단치는 안케지요 사려운다하야 이번만은이겨서 전일의 분패를 설욕할 결심입니다

宋基完君談

항상꿈속에그리든 정든고향의 링에 서게되니 나의가삼은 이상히도뛰놉니다 서군에게 일차판정으로 이겻다고는하지만 그것은완전히 이겻다고는 생각지안엇습니다 이번서군의 복수전에 등장케된 나의 결심은이번만은 서군을 너머트리고 완전히 이길결심입니다

本報讀者는 一般席二割引

금야로박두한 서정권복수권투전의 관람료는 지정석(指定席)이원오십전、일반석(一般席)일원、학생오십전인데 일반석에한하야 본보독자로서 별항우대권을 오려가지고 오시는이게는 이할인을하기로되엿다

上 徐廷權(右)、沈相玉(左)兩君
下 宋基完(左)、金基鍾(右)兩君

初等校懸賞音樂會 盛況中에閉幕
本社仁川支局後援

【仁川】 루차보도한인천내리교회엡웟청년회주최와본보인천지국후원의 제이회전인천초등학교현상음악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구일오후칠시부터 미리레배당에서 개최한바 문자그대로입추의여지가업시 대성황속에 종료되엿는대 청중들은 천사가트어린소년소녀들의 입으로하야 흘러나오는 「멜로듸」로인하여 여광여취하엿다 동회의폐회와함께합창우승교 우각리주일학교에대하야는 대회우승배와 본보인천지국장배를 수여하엿는대 입상교는다음과갓다

合唱
一等 牛角里主日學校
二等 仁武學院
遊戲
一等 朴順姬(內主)
二等 孔鎭洙(花主)
三等 金信榮(牛主)
獨唱
一等 金元順(花主)
二等 柳漢星(仁武)
三等 鄭汝煥(牛主)

(사진은 동대회 우승자)

運動競技

中等蹴球界의强豪 間島東興中學招聘戰
入場料 一般 學生
廿四日 午後四時半 對 培材
廿五日 午後三時 對 徽新
(以上京城運動場에서)
主催 朝鮮蹴球協會 後援 朝鮮日報社

大豫中等蹴球戰에 晉州農業優勝

京城帝大豫科主催의 第八回全朝鮮中等校蹴球大會決勝戰의 晉州農業對普成高普戰은 二十一日午後三時四十分부터 淸凉町大豫球場에서 朴義鉉(主審) 朴鎭洙、具昶會(線審)三氏審判下에 晉州先蹴으로開戰되바 遠來의 晉州農業軍이 五對一로 優勝하엿다

晉農5(1…0 / 4…1)1普成

【普成高普】 [illegible]

【晉州農業】 [illegible]

東興對普成戰 不得已中止

間島東興中學對普成蹴球戰은 今二十二日午後四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할豫定이든바 普成은 大豫主催大會에 連三日間의激鬪로因하야 選手中에負傷者가만하서 不得已棄權하기로되여 來二十四日의 對培材戰으로부터 開戰케되엿다

京電4 殖銀3

京城實業野球리-그 京電對殖銀戰은 二十一日午後四時八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石井(球)、平井、大島、中村(壘)四氏審判下에 殖銀先攻으로 開始되바 結局四A對三으로 京電勝捷하엿다 (閉戰六時)

京電 200000011
殖銀 000101100 A 1 3…4
(殖銀)…(京電)田村、樋口-河野、中川

秋期리-그戰績

朝鮮리비리그戰(秋期리-그)第十四日은 二十日午後四時부터 龍山球場에서 開催되바 戰績은다음과갓다

釜正9(3…6 / 3…3)6鐵工
京師12(0…12 / 0…5)5龍中
京西俱19(10…9 / 14…3)17遞信
藥專29(21…8 / 0…3)3京師俱

實業庭球第六日

京城實業庭球리-그第六日의 遞信對商銀戰(殖銀코-트)과殖銀對專賣局(朝銀코-트)은 二十一日午後五時부터 各各열리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專賣局이 快勝하엿스며 遞信對商銀戰은 第三라운드에 드러가 日沒로因하야 中止하엿는데 來廿六日의專賣對 總督府戰이 끗난後에 續行하기로 되엿다

【遞信】？【商銀】
(第一라운드)
×(松田 李鍾植)2…4(洪鍾相 劉殷相)○
(第二라운드)
○(大友 朴鍾燁)4…3(沈鍾鈺 加戶)×
×(宮崎 孫樹星)3…4(金時浩 給世新)○
(第三라운드)
○(朴鍾燁 大友)4…3(洪鍾相 劉殷相)×
(朴鍾燁 大友)？(金時浩 給世新)

【專賣】勝【殖銀】
(第一라운드)
×(李鳳基 梁在景)0…4(藤原 趙誠鎔)○
○(黃基成 淺野)4…2(李鍾鎭 崔永生)×
○(白潤輔 朴寅世)4…1(殷熏龍 神田)×
(第二라운드)
○(黃基成 淺野)4…2(藤原 趙誠鎔)×
(白潤輔 朴寅世)不戰組

面目一新할開城
總工費五十八萬圓豫算으로 道路改修、府廳新築

【開城】 개성서 가장 번화하지가지 남북선(南北線)도로는 「빠-쓰」하나만 지나도 지진이난듯 상점전폭이 몹시울림뿐더러 통행인은 피할곳조차 업슬만큼협착하야 일반부민은 하로밧비확장되기를 요망햇든바 이번권부윤(權府尹)이 도당국에 진정을거듭한결과 명년도예산에 승인되여 오십만원공사비로 리상적 시가지를 개수하기로 결정되엿다하며 목재건물로 다허무러저 기동까지버틴 부청도명년도에는오만원공비로써 신축하야 명랑한면모를 보히기로되엿다한다。

西大門管內狂犬注射

부내 서대문서관내의 금년도추추(秋季)광견병(狂犬病)예방주사는 오는구일이십사일부터 동이십팔일까지 매일 오전아홉시부터 오후네시까지에실시하는데그 시행하는날자와장소는다음과갓다

▲二十四日 西大門警察署構內
▲二十五日 蓬萊町派出所前庭
▲二十六日 大峴駐在所構內
▲二十八日 京城牧場前

鍾路署管內淸潔

시내종로서 위생계에서는 오는이십사일부터 관내에 추긔청결을시행할터이라는데 그일정과구역은다음과갓다

◇九月廿四日 宮井町 孝子町 新橋町 淸雲町 光化門通一 玉仁町 通仁町 樓下町 樓上町 通義町 體府町 昌成町 積善町 內資町 社稷町 弼雲町 內需町七一一〇九
◇九月廿五日 唐珠町 西大門町一一一二〇一一九 一八七一二 八一終 西大門町一、一一一九 一二〇一 一八六 光化門通七七 一一二三 鐘路一 一一二八 六 九一九九 中學町 諫松町 司諫町 光宥門通二一七六 公平町 淸進町一一二七 鐘路一 三九一六八
◇九月二十六日 八判町 三淸町 花洞町 昭格町 寬勳町 松峴町 聖志町 安國町 桂洞町 嘉會町 齋洞町 慶雲町 勸農町 雲泥町 益善町 臥龍町 苑西町
◇九月二十七日 瑞麟町一一九二 仁寺町 鐘路一 二 三一三〇 六七一一〇一 樂園町 敦義町 鐘路二 三一一六六 鐘路三一一 一五 八六一一〇二 貫鐵町 觀水町 長沙町 授恩町 鳳翼町 薰井町 鐘路三 一六一八 五 一〇三一一八〇
日割當日雨天인時는 二十八日로 二日以上雨天인時는 二十九日로 順延함

今日의運動

▲拳鬪=徐廷權 復讐拳鬪戰은 午後七時부터 京城運動場庭球場特設링에서 擧行(指定席二圓五十錢 一般一圓 學生五十錢)
▲庭球=實業庭球리-그第七日 午後五時 朝銀對殖銀(朝銀코-트) 鐵道對商銀(殖銀코-트)
▲野球=實業野球리-그戰 遞信對京電 午後四時 京城球場

本報讀者優待券
九月二十二日午後七時
京城運動場庭球場特設링
徐廷權復讐拳鬪戰
一般席에限하야一圓을八十錢으로割引함
朝鮮日報社京城販賣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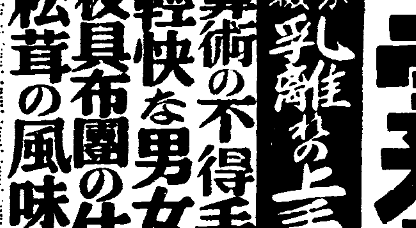
殺到하는救濟品
一日에五百餘點
本報仁川支局에寄托

【仁川】 각각으로 보도되는 재지참상을 드른각게의 동정은실로 것잡을사이도업서 금전과물품이 쇄도하는형편이다 본보인천 지국에는 지난 십구일하로동안에 래도한 구제품만도 부인병원(婦人病院) 화도(花島)교회를 비롯하야 실로오백여점에 달한다하며 그 외에도 특히할것은 리홍주(李洪柱)(○)리갑주(李甲柱)(二)형제양조빈한한가정에서 금전으로는 보낼형편이되지못하는관계로 할수없어시자기네의 의복십오점을 본보인천지국에그탁하야 칭송자로하야금 열루를 금치못하게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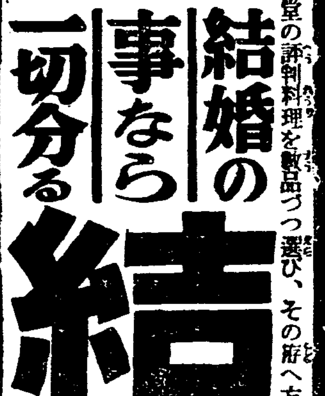
婦人病院 二百點
花島敎會 三〇五點
李洪柱 李甲柱 十五點
計 五百二十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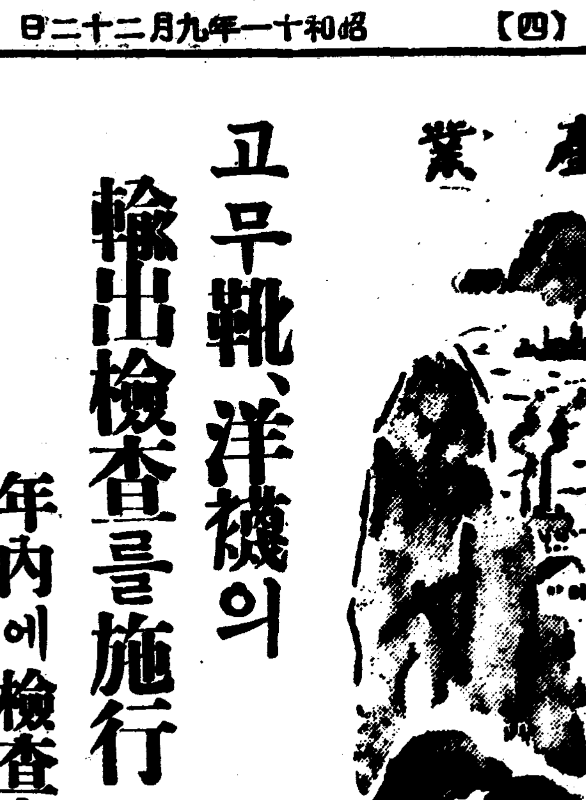
今日의救濟品 우로부터 貫鐵町會、孔德町會(右)光熙町一丁目町會(左)黃金町七丁目町會、龍山敎會

巨匠三上於菟吉先生一生一代の絶品作！

小說 街の朝霧 愈々本號より新連載！
▲女流小說 母の曲 吉屋信子
▲長篇小說 合歡の並木 加藤武雄
▲長篇小說 片羽鳥 川口松太郎
▲長篇小說 無明有明 吉川英治
▲讀切小說 子恋ひ夜鴉 原巖
松竹スター總出演 寫眞小說 結婚敎書 菊池寛

今が乳離れの好機 上手なさせ方、食事の注意
▲算術の不得手な子供の家庭の導き方
▲輕快な男女兒服三種の作り方
▲夜具布團の仕立方、綿の入れ方秘訣
▲松茸の風味を逃さぬお料理秘訣
▲近所親類交際べからず讀本 芳川幸夫 (須藤しげる画)
戀愛と結婚に深き理解を有つ讀者が、若き男女の陷り易き惱みを解決し、眞の戀愛、幸福な結婚を教へる必讀の『青年の書』です。

二冊一組の大附錄
新型毛絲編物大全集
基礎編一切と模様編100種
之に優る編物附錄絕對になし!!
毛糸編物なら斷然日本一の婦人俱樂部が實に思ひ切った讀者奉仕！
一冊は…歐米最新型を取入れ、最上百餘種の作方を詳しく指導。男女大人物、女學生物、子供物等種類が豐富で、特に子供物は澤山發表！一々編組局で實驗済のもの許りで、親切な圖解と說明がついてゐますから、どんな素人の方にも容易に安心して立派なものが出來ます。
一冊は…基礎編、模樣編なら一切分るトテモ重寶な大附錄！素敵な模樣編が自由自在に出來ます。初めての方にもスグ分る親切な指導で百餘種の編方…
此二冊あれば編物の本は必要ありません

婦人俱樂部 10月號
雜誌週間記念大奮發
大奉仕 七十錢 (送料十貳)
東京小石川音羽 振替東京三九三〇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江戶褄模樣式服三百枚呈贈大懸賞
▲男の方に知らせたい女ごころ座談會
一般の男性にこれ丈はぜひお願ひしたい、知って貰ひたいと七名家がザックバランに打明けた女心の數々！既婚未婚を問はず之丈はぜひ御覽おき下さい！
鐘紡の女工さんの生活を見るの記…林芙美子
過まく都會の一隅に塵埃と戰ふ若き女性群の赤裸々な生活を覗く林芙美子さんのトテモ面白い探訪記
肺病婦人病腎臟病の民間療法研究會
効能ある民間藥、大切な食養法、難病征服の尊い體驗等斯界の六大權威が發表！右病氣の方はお試しあれ
新朝鮮總督 南次郎夫人を訪ねて…大妻コタカ
見よこの隱れたる內助の功！今一豐の妻といはれる夫人が大將を今日あらしめる迄の血と淚の半生！
有名食堂の美味しい一品料理
東京、三越、伊勢丹等有名十六食堂の評判料理を數品づつ選び、その作り方を發表した重寶記事！

結婚の事なら一切分る 結婚大特輯
▲結納から披露までの禮法一切…岡 初野
▲結婚前の男女身體の準備…(醫學博士)井出ひろ子
▲新婚時代の性生活の大切な心得…(醫學博士)福井正憲
▲花嫁のお化粧栄えのする肌の整へ方…早見君子
▲高島田に上げる前の髮の手入れ法…池田つま
▲花嫁姿を引立たせる著付用品の選び方仕立方…千葉益子
▲結婚調度品のお値段調べ
▲結婚式披露宴の費用調べ
▲花嫁衣裳の豪華大画報
オリムピック 大画報
開會より閉會まで全部ある大畫報！
感激譜 サトウハチロー
胸は高なる心は彈む感激のリズム！
水の女王 前畑秀子孃
榮冠の蔭にこの努力ありこの淚あり
夫婦新道
號を重ねる毎に愈々評判を加へる文豪の大卓見！若き男女の双眸は悉くこの一文にそゝがる！大評判！



고무靴、洋襪의 輸出檢査를施行
年內에 檢査令改正

重要輸出品檢査의 擴充은、朝鮮産輸出品의 聲價維持와 品位向上을 圖하야 殖産局에서 愼重調査中이든바 今年度에 다음의二種目에 檢査를 實施키로 決定하엿다 追加되는것은
一、고무靴
一、洋襪製品
의 兩者로 對滿貿易及對中貿易品으로 發展餘地가잇서 總督府에서는 右施行準備를 爲하야 慶南 京畿 平南等의 關係各道에 施行準備를 이지음 通牒하엿는바 잇섯는데 年內에 檢査令의 改正을 行할 豫定이다
一、今後의 指導奬勵方針에 關한事項
一、朝鮮內의 指導奬勵上 改善事項

坡州畜牛大市開催

【汶山】坡州郡農會에서는 例年에 依하야 二十一日(陰八日)에 川家畜市場에서 畜牛大市를 開催하기로되엿는데 畜牛一頭賣買雙方에 限하야 抽籤券一枚式 交付하고 當籤者에는 賞品을授與하기로되엿다

黃海道甕津近海의 "바지락"産出減少

【甕津】黃海道 甕津近海에서每年産出되는 貝類의 年産額은五萬圓을 突破하고잇는데 今年가을부터는 무슨까닭인지 貝類中에 恒常産額의 首位를 占領하고잇는 「바지락」의 産出이 減少되야 業者들은 困境을 늣기고 잇다는데 郡當局에서는그 原因을 方今調査中이라고한다

夏秋繭共販 出廻量激減
繭價는比前年高騰

鮮內夏秋繭의 共販出廻는 例年에 比하야 十日乃至二週間이 늣고 게다가 風水害被害를 蒙하야 大體二十日現在로 前年同期의 共販數量에 比較하면 南朝鮮三割五分減、北朝鮮一割減으로 繭價格은 前年에 比하야 一掛가량 全朝鮮을 通하야 高價를 唱하고잇다 製絲의 原料不足은 不可避로보이나 一面 風水害로 絲의 消費減退도 豫想되어 아직 자세한것은 알수업는 狀況이다

身彌島白蝦 漁船雲集盛漁
今年은五十萬圓突破?

【新義州】白蝦의 盛漁期를 當한 宣川 身彌島附近에는 平北沿岸을 비롯하야 平南、黃海道方面으로부터 多數의 漁船이모히여 그數는 約三百隻에 達하는 盛況을 보이고잇다는데 今月下旬이 盛漁期로 一隻이 平均三百圓의 收獲을 올리고 價格도 一斤一圓으로 取引되고잇는바 昨年의 收獲은 二十萬圓이든것이 今年에는 五十萬圓을 突破할모양이라한다

平南道在米高 約十五萬石 九月一日現在

【平壤】平南道第一回米穀現在高調査는 지난一日을 期하여 一齊히 二百二十四名의 調査員을 動員하여 十歲은勿論 米穀商人 港中의 汽船에 積載한것까지 多大한 苦心을하여 調査한結果 道의 正租、玄米는 十九萬石이 잇서서 玄米로換算할時에는 約十五萬石으로 推算되다 이正租 玄米는 新米가 白米로될때까지 維持되여 食糧이되고 남는것은 移出되는것이다

緬羊主任官會議 二十八日에開催

今年度 緬羊主任官會議는 來九月二十八日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三日間에 亘하야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關係六道의 主任官이 左에依하야 協議하기로 되엿다
一、奬勵三個年의 各道의 實績

畜産咸北大氣焰!
種豚羊又復注文

【羅南】聽者 滿洲國側에서 畜産王國咸北에 耕牛의 大量注文이 잇섯는바 今番은 다시 間島 方面에서 種豚과 緬羊의 注文이 잇서 種豚으로 十二頭는 이미 보내엇고 緬羊三十頭도 各農家에 斡旋하기로하야 目下 準備中이라는바 이로서 咸北의 畜産界는 一層 滿洲國에 優良한 畜産을 提携하야 指導的立場에 서게되엇스며 勿論將來도 如斯한 廣大한 販路를 가지게되야 畜産咸北의 前途는 實로 洋洋한바잇다

開城都橋市場商人 消費組合組織運動

【開城】現在 開城南大門通 都橋市場 百餘名 食料品小賣商은 몃몃 都賣商에게 暴利의 搾取를 當하야 小利나마 獲得할수업슴으로 同市場繁榮會 會長林景植氏의 發起로 五萬圓 拂込의 『都橋食料品消費組合』을 組織하야 中間搾取를 排除하기로 猛活動中이라한다

北朝鮮新規運賃 一割引上決定

北朝鮮線이 同盟會는 北朝鮮關係 荷主間에 協定中인 新穀期穀物賃을 夏季에 比하야 各一割引上인六十三圓九十錢으로決定、一月一日로 遡及實施키로되엿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四五六	金銀鑛	咸南三水郡鎭興面	八月二十日	甲山郡惠山邑 代表者 林利久
一三四五七	金銀銅鉛鑛	慶北義城郡春山面 青松郡縣西面	八月二十八日	京城府武橋町 代表者 白承福 同阿峴町 李周榮 慶山郡慈仁面 崔達興
一三四五八	金銀鑛	江原楊口郡水入面 方山面	八月二十九日	通川郡順達面 崔圓道 末吉
一三四五九	砂金	京畿安城郡薇陽面 安城面	同	天安郡成歡面 代表者 成歡鑛業株式會社 東京市小石川區小日向台町 岩崎清七

羊毛新季節到來
②主要國의 生産消費

南米의輸出高

▲亞爾然丁 此國은 世界第三의 生産國으로 第一位의濠洲의三分一보다 좀만히 生産한다(第二位는 米國인데 이는아직 國內需要를 채움에 足치못함으로 世界羊毛市況에 影響하는바 적다)近年 國內消費가 急激히增加하얏스나 아직五千五百萬封度가량으로 生産高의 一割六、七分에 不過하다 이제九月末로써 終了되는 各年度의 亞爾然丁의 羊毛生産 及 輸出高를보면──
(生産高는 英帝國經濟委員會調査、脂付計算、輸出은 實際俵數를 封度로 換算한것)(單位百萬封度)

	生産	輸出
一九三一─二年	三六八	三〇二
三二─三年	三六八	三五五
三三─四年	三六五	二九九
三四─五年	三七九	三三六
三五─六年	三八〇	─

다음에 昨年十月一日부터 今年六月末까지의 輸出高를 國別로보면 如左하다(單位千俵、一俵는平均九二六封度)

英國	八三、七
獨逸	四四、九
佛蘭西	五七、八
伊太利	九、八
白耳義	一九、七
米國	四六、七
和蘭	一、八
西班牙	二、二
日本	二、七
其他	一四、六
計	二八四、〇

▲우루과이 此國의 生産高는一億一千萬封度가량으로 濠洲의 十分一보다 좀 만흠에不過하나 國內消費가적음으로 國內消費는 約四百五十萬封度─羊毛輸出國으로서는 相當히重視된다(生産은英帝國經濟委員會 調査脂付計算 輸出은實際輸出俵數를封度로換算한것)(單位百萬封度)

	生産	輸出
一九三一─二年	一〇四	八六
三二─三年	一一二	一〇五
三三─四年	九五	八七
三四─五年	一一七	一〇八

우루과이羊毛의 顧客으로서는 伊太利가 獨英을 第一로 이에 伊太利의 그다음이든바 最近은 伊太利의 輸入이 減하고 米國이 擡頭하게되엿다 이제 昨年十月一日부터 今年六月下旬까지의 輸出統計에對하야보면

(單位千俵 一俵는平均九百二十六[illegible]俵)

▲總額 一〇一・八 前年同期
獨逸 二五・六
英國 二四・六
米國 二三・〇
佛蘭西 七・九
白耳義 七・二
伊太利 六・四
日本 三・一

最近 日本은 通商政策上 될수록 此國으로부터도 羊毛를買付하려고하고 잇스나 此國은人口僅二百萬의 小國이다 羊毛의 生産增과 外國製品의 輸入增을 크게 期待할수업다

其他生産國

그他米國、蘇聯聯邦、英國等도 羊毛의 大生産國이다 此等의諸國은 羊毛의 大消費國으로 오히려外國으로부터 供給을 補充하는形便이다 英帝國經濟委員會의 調査에 依하면 此等諸國의 生産高及 純輸入高는 如左하다(生産은 脂付計算、純輸入은實際重量)(單位百萬封度)

	生産高	純輸入
米國	四五一	二〇〇
蘇聯	一六九	七一
英國	▲一一〇	五八一

▲此中五千六百萬封度를外國에 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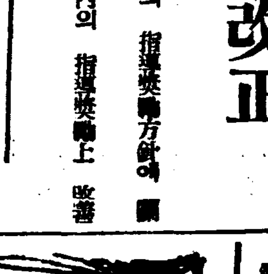
印度及 中國도 生産國이나 正確한 統計가업다 英帝國經濟委員會의 報告에依하야 大體를엿보면──

▲印度 해에따라 變動도잇스나 年産額約一億封度로 推算된다 그리고 輸出額은 年平均四千五百萬封度의 輸出을 보엿다 勿論 그一方에잇서 同年에는 七百萬封度의 外國羊毛가輸入되엇다。

▲中國 生産高는 約一億一千萬封度로 推算되는데 此中平均年六千萬封度가 外國으로 輸出되고잇다。
勿論一九三二年以來는 輸出도 一層減한 模樣이다一方 外國羊毛의 輸入은 漸次增加하야 一九三五年에는 六百五十萬封度의 輸入을 보엿다

主要國羊毛輸出入高 (萬國農事協會調査 單位百萬封度)

[illegible]



問 重晶石의 賣買價格과 買入所를 下敎하시옵소서(瑞山郡金東愼)
答 京城府永樂町一丁目 中川鑛業所에 直接問議하시오
問 殺虫劑 硫酸銅과 카제인石灰販賣所를 下敎하시오(平澤大濟生)
答 京城府蓬萊町一丁目 井上商店出張所

各地秋繭共販

▲高原 咸南高原郡農會에서 秋蠶繭共同販賣를 開始하엿다는데 그價格은 左와如하다(九月十四日現在)
▲特等三圓七十一錢▲一等三圓八十二錢▲二等二圓五十三錢▲三等二圓二十四錢▲四等一圓九十五錢▲等外一圓六十六錢▲中繭一圓三十七錢▲玉繭一圓八錢
▲開慶 開慶郡農會에서는 左의期日에 秋繭共販을 行하기로 되엿는바 大體價格은 特等一貫에三圓十錢가량이라한다
▲店村 九月二十一日 ▲山陽 同 ▲東로 同 ▲開慶 九月十二日

日用商品市況

漢藥 (京城廿一日現在)
開城人蔘(一斤) 一等 二等
[illegible]

‖天一藥房調査‖

本社接受水害救濟品(九月二十一日現在)

物品合計 十一萬五千九百三點
穀物合計 二十七俵四斗二升七合

沙江里監理敎會 衣三六點
[illegible]

崇仁公立普通學校兒童一同 計三六一點
[illegible]

長沙町町會 衣類八七四點 白米一俵
[illegible]

大興町町會 衣四九〇點 米四升
[illegible]

昌成、通義町町會 衣類一三四四點 白米一斗八升 藥品十五包
[illegible]

崇仁町町會 衣類一六〇五點 米九升、藥五個
[illegible]

彌阿里(村農)振興會 衣一四六點
[illegible]

安岩町町會 衣五三〇點 米一斗一升 藥三包
[illegible]

黃昏 (184)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교차선(交叉線)(七)

순(淳)은 복구를 훌륭이한데로 보내고 곳 려순이를 자자왓든것이다──

「려순씨、옷사무실、복직령(復職令)이 내렷습니까? 하하하……」

거렁만한 자리가、아니여서준식은 러노코 크게 우섯다.

「아니게아니라、그런가 봅니다……그런데 그런 어떠케 아섯서요?」

「다 아는수 잇지요…… 대체 뭐랍디까?」

「그저 그런 소리에요. 갈팡질팡한게 어듸 대중할수 잇서야지요!」

려순은 사장의 야심을 어느정도까지 알고 잇섯스나 그것까지는 덜어노코 말할수 업서서 그저 이러케 펑펑하게 말하엿다.

「덜허노코 옷사무실에 올리라와 잇스라고만 합듸까?」

「아니에요. 그런것만이 아니고……공장 자미가 어떳느냐? 공장 공기는 대개 알게되엇느냐?……하고 못드군요」

「홍 그럴테지요……」

「려순씨가 옷사무실에 엿서든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잘보중할을 알고、한번 적어본는거겟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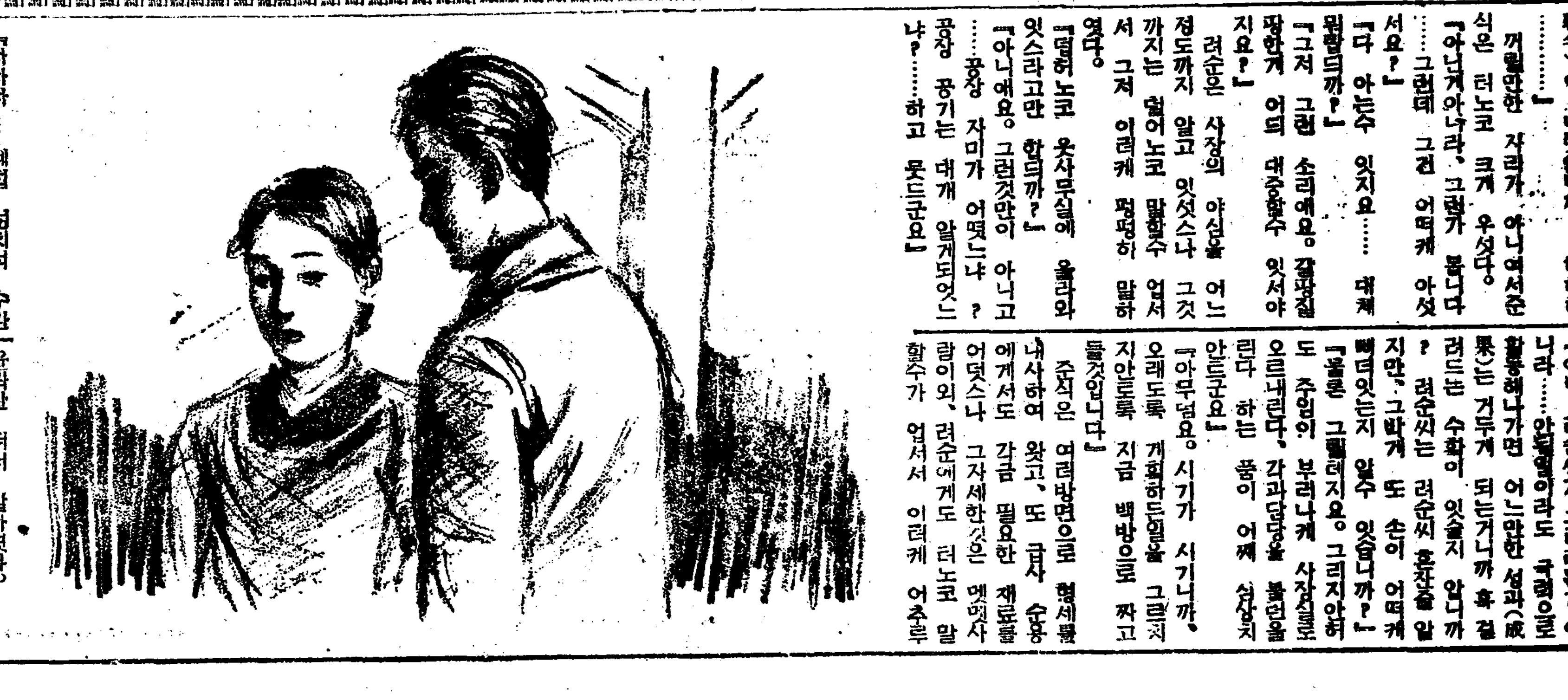
「누가 걸리나요」

「아니、려순씨가 그러타는게 아니라……안될데라도 극력으로 활동해나가면 어느만한 성과(成果)는 거두게 되는거니까 후 걸러드는 수확이 잇슬지 압니까? 려순씨는 려순씨 혼자를 알지만、그밧게 또 손이 어떠게 빼더잇는지 알수 잇습니까?」

「물론 그럴테지요. 그리지아러도 주임이 부려나게 사장실로 오르내리다、각과담당을 불러올린다 하는 품이 어째 심상치 안튼군요」

「아무렴요. 시기가 시기니까、오래도록 계획하든일을 그러지지안토록 지금 백방으로 짜고들것입니다」

주직은 여러방면으로 형세를 내사하여 왓고、또 금사 순용에게서도 각금 필요한 재료를 어덧스나 그자세한것은 멘메사람이외、려순에게도 러노코 말할수가 업서서 이러케 어주루



「하하하……제법 정치적 수완을 쓰는모양이지요……」

「그리고 또 요새 무슨 별일이 업느냐? 직공들은 대개어떠드냐? 나뿐사람은 업드냐? 조흔사람두 잇드냐? 하고 무슨 팔진도나 펴듯이 술을 뜨는 품이 첨은 퍽불쾌햇습니다만、시침이를 떼고 아무일 업다. 모다 조흔사람들뿐이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잇다……하고 말해주엇지요. 햇드니……물론대부분은 다그럴거지만 그래도 멧멧 나뿐분자가 잇서서 각금 말성을 부리고 또 요새 무슨 딴눈치가 잇다는데 그건 알지 못하느냐구……」

「하하 그래서 대답을 그래서요?」

「그런 일은 좀 알수업고 또나뿐사람도 잇는것갓지안다구 그랫지요. 그러니까……지나가는 일은 하여간 인제부터는 공장내의 공기를 잘살피여 달라구요. 알고로 인사문제 가튼것도 생길거고 하니까 그만줌 알고 미리 동정을 잘살피어두면 후에 조흔기회가 오거라고……그리고 뭐 인사과에 써주래나요 마침 자리가 잇고하니까……」

「그래서 승락햇습니까?」

「아니오、나는 지금 이자리가 첨부터 소원이니까 그대로 두어달라고 햇지요」

「요컨대 회사측의 의견이나 처사를 전체적으로──무조건으로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순용이와 자기의 관계라든지、또는 순용이가 원한에 눈이 어드운 누이(정념)에게 손을 빼치고 잇는것이라든지는 주직이 혼자만 아는일이엇다.

「사장의 태도만 보아도 전과는 확실히 달르드군요──나뿐분자는 절대 용서안코 단호히 처치한다든데요」

「물론 그리랴고 들겝니다、그래서 지금 밧삭 초조해나는거겟지요……웨、악가 동필이도 불러갓스시요……못 보셧습니까? 려순씨가 나간지 조곰후에 직포부담당에게 불려서 공장사무실에 갓다가 그길로 옷사무실엘 가는걸 본사람이 잇는데요」

「아니요、난 보지도 못햇서요」

「그러치 물론 따로따로 불럿슬겝니다……주임이 여태 보이지안는걸보니 동필은 퍽시가 불려다가 구슬리는 모양이군요……좌우간 곳 알아보지요」

하고 주직은 그만 가버리랴다가 다시 돌아서며、

「그런데、인제 그런 기회가 오거던 되넘겨 저편속장을 좀두드려보지요. 그리고 오늘 나제경과는 밤에 좀더 자세히알리도록 요령을 잘생각해두는 것이 조켓습니다」

하고 인차 복구의 말을 들은 방향으로 저편으로 가버렷다.